

中 전 인민은행장 "빠른 단기 소비자금융 증가가 채무위기 요인"

기사입력 2018-11-07 15:47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단기 소비자금융이 부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중국인민은행장이 경고했다.

7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저우 전 행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단기 소비자금융의 빠른 증가세가 디폴트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층에 돈을 빌려 물건을 사는 것을 부추기는 환경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한 중국인민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소비자 금융은 2017년 1월 전년대비 19.9% 증가세를 보였으나 같은해 10월 40.9%의 증가세로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 보고서는 2008년에서 2017년말까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단기 소비자금융 비중이 7.3%에서 16.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7%에서 49%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중이 30%를 넘어서면 중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중국의 단기 소비자금융 증가세는 부동산가격 급등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부동산 구입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소비자금융에 의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 소비자금융을 이용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인민은행은 2016년 하반기이후 부동산시장 거품을 막기 위해 점차적으로 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부동산 구매자들은 단기 소비자금융을 이용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단기 소비자금융이 부동산투자 등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13개 금융기관이 소비자금융 관리부실 사유로 모두 1천40만위안(약 17억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P2P(개인간) 대출플랫폼에 대한 단속도 단기 소비자금융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소액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아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개발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고위험 수익 사업이다. 중국의 P2P 대출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으나 당국이 부채위기를 막기 위해 레버리지 축소에 나서면서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고 돈이 물린 투자자들의 시위로 사회적 혼란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또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중국 경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최대 40조위안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것은 아주 거대한 신용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채무 빙산"이라고 지적했다.



먹구름 낀 중국 금융중심 상하이 푸둥지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jbt@yna.co.kr

▶ 뭐하고 놀까? #흥이 연극티켓 쏜다~! ▶ 뉴스가 보여요 - 연합뉴스 유튜브

▶ 네이버 홈에서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0453846>
